

완도군, 해양바이오 생산시설 구축 박차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 구축 개념설계 착수 보고회 개최



완도군은 지난 18일 군청 상황실에서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 기준(GMP) 개념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신우철 완도군수를 주제로 임영훈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생명자원과장과 자문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념설계 추진계획 보고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 구축' 사업은 3년간 총 250억 원을 투입해 완도에서 생산된 다양한 해조류에서 기능성 물질을 추출해 건강기능

식품 및 의약품, 기능성 화장품 생산 등을 위한 원료 소재 공급 체계 구축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 가공 산업에 머물러 있는 해조류산업이 바이오산업 소재 활용으로 해조류의 고부가 가치화와 지역 내 다양한 해양 바이오 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올해 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개념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공사 착공, 2023년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해수부와 전남도, 전남바이오 산업진흥원의 해양바이오연구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설계에서부터 다양한 기업들의 수요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면밀히 반영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해양수산부 임영훈 해양수산생명과장은 "해양생

물 특히 해조류의 해양바이오 기능성 소재 개발의 시작 단계로 본 시설을 활용한 소재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며 "개념설계 단계부터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최적의 기업 지원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본 사업 추진으로 해조류의 고부가 가치화를 통한 주민 소득 증대와 해양바이오기업 육성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며 "지자체 소멸 위기에 대응해 우리나라 어촌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모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군은 2022년 준공 예정인 해양바이오 공동 협력연구소에 기업 부설연구소 10개와 스타트업 30개소를 유치하여 다양한 연구 성과 창출과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을 연계하여 연구에서부터 상품화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통한 해양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완도=이민혁기자

강진군, 맥류 습해피해 예방 당부

짚은 강우 배수로 정비 및 거름주기 등 포장 및 생육 관리 강조

강진군 최근 강우량(3월 상·중순)이 최근 3년간 2.5배, 지난 해 대비 4.3배나 증가하여 맥류 습해가 우려됨에 따라 철저한 포장 관리를 당부했다.

맥류는 토양이 다습하면 뿌리호흡 저해, 양분흡수 감퇴에 따라 잎이 노랗게 변하는 황화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과습되면 통기가 나빠지고 뿌리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뿌리조직 괴사, 묵화 등이 촉진돼 뿌리 신장정지 및 지상부 생육 큰 장애를 받는다.

이러한 습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배수가 불량한 포장의 경우 양쪽에 보머리를 트고 배토기 등을 이용

하여 배수구를 반드시 재정비하여 습해를 예방해야 한다. 습해로 식물체가 황화현상을 보이면 요소 2%액(요소 비료 200에 400g를 녹임)을 300평당 100ℓ씩 2-3회 엽면시비 하여 회복을 유도해야 한다.

김춘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일동기 이후 따뜻한 날씨로 맥류 임모율이 높고 현재 생육상태가 좋지만, 높은 온도와 짚은 비로 병해충 발생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적절한 포장 관리와 적기방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진=김영일기자



해남군, 포스트코로나 스포츠마케팅 이끈다

삼산면 제2스포츠타운 조성...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박차

해남군이 제2스포츠타운 조성으로 코로나 이후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 대응한다.

군은 국비 43억원 등 총 사업비 180억 원을 투입, 삼산면 평활리 일원에 제2스포츠타운을 조성한다.

11만 3,506㎡ 면적에 축구장 2면과 성인야구장 2면 등을 갖춘 제2스포츠타운은 코로나 이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군민 생활체육 활동과 전국단위 스포츠 대회 유치 등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으로 올해 말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착공 2023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함께 군은 2023년까지 우슬체육공원 인근에 복합체육문화센터를 완공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86억원 중 국비 51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복합체육문화센터는 연면적 3,250㎡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2층 복합시설로 장애인 특화형 수영장과 작은도서관을 복합화하고 체력단련실 등의 공간을 마련해 지역민들이 다같이 즐길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을 비롯해 우슬경기장 관람석 리모델링 및 조명타워 설치, 우슬소프트테니스장 비가림시설 등 스포츠 인프라 확충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해남군은 육상트랙과 천연 잔디구장을 갖춘 우슬경기장을 비롯해 3면의 축구전용구장, 전국단위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우슬체육관과 동백체육관 등을 포함해 수영장과 웨이트 트레이닝장, 8레인의 전천후 육상실내경기장을 우슬체육공원내에 갖추고 있다.

이같은 시설들은 우슬 경기장을 중심으로 10분 이내 거리에 집약돼 있어 선수들은 멀리 이동하지 않고도 기초 체력훈련은 물론 경기까지 치를 수 있어 전국적으로 가장 효율성이 뛰어난 훈련 시설로 꼽히고 있다. 이번 제2스포츠타운은 숙박과 음식점이 밀집된 삼산면 인근에 조성됨으로써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생활체육 활동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되는 것은 물론 각종 전지훈련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동희재본부

장흥군, 보건복지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선정

장흥군은 18일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시범 사업은 일차의료기관(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을 통해 고혈압 및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

덕미래의원 등 관내 6개 의원이 다.

해당 의원들은 1개소당 500명 이하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1년간의 맞춤형 건강관리 종합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하고, 이후 환자 모니터링, 교육과 상담 등 환자 관리를 수행한다.

동네의원 중심 지역사회 자원 연계 통해 만성질환 예방

군보건소·군의회·진보공단 영암장흥지사와 업무협약

이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달 24일 장흥군 보건소, 장흥군 의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암장흥지사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한마음내과, 성경의원, 조길호의원, 성심의원, 이상준내과, 대

환자는 본인 부담금 10%만 지불하면 의료 전문가를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1년간 받을 수 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동네 의원 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만성질환자들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강진 대구면 고바우공원에 노을전시관 조성

강진군이 강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공간인 '노을전시관'을 조성한다.

군은 대구면 고바우공원 내 기존건물을 활용하여 부지면적 7,773㎡, 연면적 712.44㎡의 3층 건물인 노을전시관을 조성한다. 이에 오는 4월 착공해 12월까지 전시관 증축과 내부 전시 디자인을 설치하고, 내년 1월중 군민과 관광객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야외 전시기획물, 포토존, 30m 길이의 스카이라인을 조성하여 아찔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한다.

다는 방침이다.

군은 새롭게 조성된 노을전시관이 완료되면 내부 카페를 강진군민을 대상으로 입찰을 통한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위탁 운영 중인 대구면 봉황나루 카페는 공사기간중 휴업에 들어간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봉황나루 노을전시관 조성을 통해 강진의 아름다운 자연과 노을을 보기 위해 찾는 많은 관광객이 찾는 강진군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진도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추진

진도군이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지방 세수 확보를 위해 오는 9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지방세 체납액은 12억5,900만원으로 군은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군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등을 압류하는 신속한 체납 처분으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고액·고질체납자는 압류 재산을 공매처분하고 신용불량자 등록, 명단공개 등 행정·재정상의 불이익 처분을 통해 세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진도=조성용기자

